

특허청,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새바람

- 특허청, 경기 의왕도깨비시장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 개최(1.21.) -

김완기 특허청장은 1. 21.(화) 15시 지난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경기도 의왕시)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2023년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도깨비 뿔과 방망이를 활용하고 서체에 포인트 컬러를 부여한 ‘여기 똑딱 의왕도깨비시장’이라는 신규브랜드와 ‘도깨비탈을 쓴 따스한 마음을 상징하는 우리이웃’을 재미있게 표현한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상표권 10건을 획득했다. 이후 등록된 상표를 활용하여 시장 전체 사인물 교체를 통해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왕철도 특구와 왕송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했다.

지원전		지원후	
<브랜드>	<캐릭터>	<브랜드>	<캐릭터>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하여,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총 500여 건의 상표와 디자인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술 상인회장 등 10여 명의 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용술 상인회장은 “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한 캐릭터인 만큼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의왕도깨비시장이 보여준 혁신적인 변화는 다른 전통시장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붙임: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주요사례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 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책임자	과 장	정선웅 (042-481-8621)
		담당자	서기관	이선희 (042-481-8663)

[24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주요사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온양온천시장 (충남 아산시)	<상표출원 9건>  온양온천 및 온궁터를 반영한 MI(Market Identity) 개발, 아산의 상징인 수리부엉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은봉이) 개발에 더해, 시장 조합에서 고객상품으로 출시예정인 '온천달갈계란빵'에 어울리는 캐릭터(에그온) 개발	<디자인출원 3건>  (라벨지 3종)
왜관시장 (경북 칠곡군)	<상표출원 8건>  '꿀잼, 꿀맛' 시장의 컨셉과 호국의 도시인 칠곡 이미지를 활용한 MI 개발, '흥과 정이 넘치는 재미장터'와 '꿀벌'을 캐릭터(달달퍼니, 달달허니)로 개발	<디자인출원 2건>  (쇼핑백)  (라벨지)
문창시장 (대전 중구)	<상표출원 9건>  시장 주변의 스포츠(야구, 배구) 시설과 조화된 MI 개발, 스포츠의 열정, 승리, 응원 이미지를 반영한 캐릭터(챌챌이, 피앙이, 언똥이)개발	<디자인출원 1건>  (쇼핑백)